

대우통신 삼성전자 아시아자동차

'아망떼 크린 900' 시판 고기능 인버터 개발 '타우너 멀티' 시판

'아망떼 크린 900' 시판

대우통신은 휴대폰처럼 사용하기 간편한 플립형(Flip: 접이식) 휴대장치를 채택하고 통화 가능 거리 알림 기능을 가진 900MHz 무선전화기 '아망떼 크린 900' (모델명: DV-9054)을 본격 출시하고 시장 공략에 나섰다.

아파트 단지내 상가나 놀이터 등 가까운 외출 지에서도 통화가 가능한 900MHz 무선전화기 '아망떼 크린 900'은 통화가능 거리를 벗어나면 경고음이 울려 쉽게 통화가능 거리를 알 수 있어, 외출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휴대폰처럼 작고 가벼운 플립형 휴대장치를 채택, 주머니속에 넣어 휴대하기 간편하고 버튼의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다.

고기능 인버터 개발

삼성전자는 최근 유도 전동기(모터)의 속도 및 위치제어에 사용되는 고기능 범용 인버터 개발에 성공했다.

삼성전자가 2년간 60명의 인력과 5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이 인버터는 공장 자동화, 고속전철과 전기자동차 항공기등 고정밀 위치 및 속도제어가 필요한 자동화 설비에 들어가는 핵심장비로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다.

특히 기존의 인버터 제어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디지털 벡터 제어기술」을 사용해 최저 0.5rpm에서 최고 1만rpm까지의 속도제어뿐 아니라 오차범위 0.05도이하의 초정밀 위치제어도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이 제품의 가격을 기존 수입제품에 비해 30% 이상 싸게 책정, 범용 인버터시장의 가격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타우너 멀티' 시판

아시아자동차는 인원수송과 화물적재에 따라 내부공간을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5인승 다목적차량(MPV)인 「타우너 멀티」를 개발, 26일부터 시판에 들어간다.

이번에 시판되는 「타우너 멀티」는 기동성, 편의성 및 경제성이 뛰어난 기존의 타우너차종에 실내거주성 및 실용성과 인락한 승차감을 강화해 일상업무와 레저용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차량이다. **발특 9609**

▶ 보도자료 접수 ◀

FAX (02)554-1532